

해남군, 지역경제 중심축 골목상권에 '온기'

골목형상점가 10개소 돌파...황산면 공동거리 신규 지정 560여 가맹점 은누리상품권 혜택...“지역상권 침체 개선”

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 '공동거리 골목형상점가'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해남읍의 고도리 골목형상점가·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4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와 '명지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해남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 560여 상가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년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상권의 기초체력을 다져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점포밀집기준을 기존 '2000㎡이내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상가.

사진제공=해남군청

상'으로 완화하면서 지정의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방침에 힘입어 해남군내에는 우수형 상점가(59개)를 시작으로 대흥사(50개), 해남읍 원도심(85개), 망골마을(48개) 등 주요 거점 상권들이 속속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

서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20개)와 명지누리(36개) 상점가가 이름을 올렸으며, 황산면의 상권 중심지인 공동거리도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상가에서도 은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고, 상인은 매출 증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군은 단순한 지정을 넘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정된 상점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전남

도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유지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은누리 가맹점포의 안정을 위한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과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권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는 지역 상권 침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상인회와 협력해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239@gwangnam.co.kr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서 판매 중인 '강진 미식 헤리티지 투어' 관광상품 화면.

강진 명품 여행상품 쇼핑몰서 만난다

군, G마켓 프리미엄 관광상품 남도명문가 첫 출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G마켓에 '강진 미식 헤리티지 투어'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처음으로 출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나주 종가에서 강진 차살까지, 남도명문가 1박 2일"이라는 이름의 이번 여행상품은 강진이 자랑하는 독보적인 미식 콘텐츠와 유서 깊은 전통문화,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하나로 묶은 프리미엄급 패키지 남도 여행상품이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전남관광재단, 금호고속 여행사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는 이번 여행상품은 강진의 골프 리조트인 '다산베아체 리조트'에서의 1박 일정을 포함 다산 정약용과 국내 최초의 차 브랜드의 전통을 간직한 월출산 자락 백운차실의 다도체험 등을 즐기며 머무르는 '고급형 국내 여행상품'으로 남도 체류형 관광여행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G마켓을 통

해 편리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편리한 교통과 숙박, 강진군 특화형 관광콘텐츠가 하나로 결합된 스마트한 관광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여행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식 헤리티지 투어'는 강진의 대표적인 갯벌 생태자원인 강진만생태공원을 비롯해 한국민화무지업, 고려청자박물관, 월남사지 삼층석탑 등 강진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미식 헤리티지 투어 상품은 강진의 뛰어난 미식과 문화·역사자원, 고급스러운 강진여행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관광상품으로 확장한 첫 사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급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진도, 무릎·안질환 수술비 지원 '호응'

무릎 52건·안질환 305건...“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

진도군의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이사업을 통해 올해 들어 5월까지 무릎 25건(18명), 안질환 95건(58명)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무릎 27건(23명), 안질환 210건(132명)에 대해 지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까지, 안질환 수술비는 한쪽 눈 기준 3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급여 부분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조도면의 한 군민은 “고액의 수술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돼 수술을 미뤘었는데, 진도군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다”며 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진도군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며 총합 의료 복지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환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140%)', 부양의무자



진도군의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가구의 '소득·재산수준(200%)'을 조사하고 평가해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수술비가 부담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서 서경덕 교수의 역사 특강

“문화유산 가치 되새긴다”

글로벌 무대에서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전남 영암에 마련된다.

영암군은 오는 20일 영암도기박물관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

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라는 화두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재 영암도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보순회전과 발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은 관람객들이 전시에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역사를 세계에 전파하는 홍보의 필요



성을 흥미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연사로 나서는 서경덕 교수는 방송과 SNS 등 다채로운 매체를 만나며 한국

역이 이번 강연에 고스란히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청강을 원하는 이들은 17일까지 포스터에 인화된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군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역사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길 기대한다”며 “지역 사회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서용용 기자 biz@gjdream.com

초대석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현장 화확사고 반복 '예방 중심 체계' 전환 시급

지금 이사람



김진숙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머리카락으로 피워낸 예술 반세기 지나 예술이 되다

전남농업이야기



오상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곤충이 미래 먹거리” 전남, 밀원 산업화 시동건다

남도 예술인



조혜수 배우
“광주 이야기 현재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

2026.06 vol. 15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계도 '다도해 호령' 달개섬, 백척간두 벼랑 끝에서 만나다

여기까 명상·치유할



영도 산호사 청정바다가 보이는 마음쉼터 '치유의 사찰'

커버스토리

이인곤
광산이씨 도문중 총회장

“필문 이선재 선생, 조선 단종 스승이자 광주 빛낸 대표적 인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재조명'... 고리사·대흥실록 편찬 참여 광주목·복권 앞장·광주항역 창안... 호남 대표 사림 '우뚝'